

# 블루노트의 현대적 개념

김대승\*

\*청운대학교 방송음악과

e-mail:pentatonic@chungwoon.ac.kr

## The Modern Concept Of Bluenotes

Dae-Seung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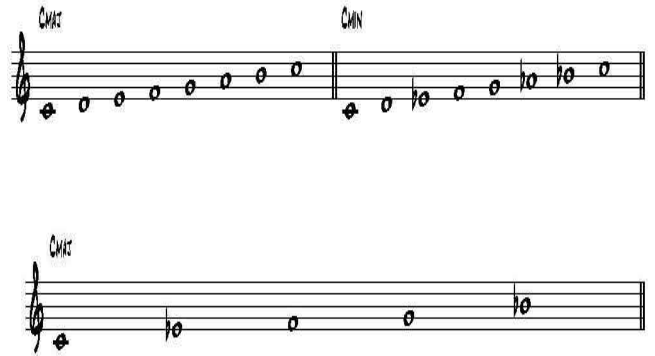
\*Dept of Broadcasting Music, Choongwoon University

### 요약

초창기 Blues음악에서의 Bluenote는 단지 b3rd와 b7th음만을 상징하는 국한된 의미로서 사용되어졌다. 하지만 이후 Jazz Blues라는 장르를 통해 복잡한 구조의 화성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코드스케일들이 사용되면서 Bluenote에 대한 새로운 개념정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논문은 Bluenote의 본질과 변천과정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Bluenote의 Modern Concept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질 것이다.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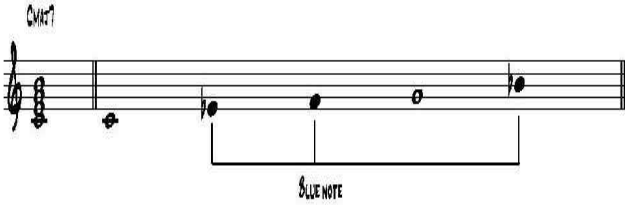
Bluenotes란 Blues음악을 상징하는 음들로서 일반적으로 b3음과 b7음을 일컫는 고유명사이다. 이들은 Blues음악이 지닌 독창성의 근원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독특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며 초기 재즈음악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 이렇듯 Bluenote가 재즈음악사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은 Blues음악이 가진 유일무이한 조성체계에 기인한다. 과거 Blues이전의 모든 음악에서 Cmajor 코드에는 C Major 스케일을 Cminor 코드에는 C Minor 스케일을 사용하며 동일한 조성하에서 화성과 선율이 만들어졌던 것과는 달리 Blues음악에서는 Cmajor 코드에 Minor의 조성을 가진 C Minor Pentatonic 스케일을 사용하며 이를 Blues 스케일이라 불렀다. 이는 기존 전통 화성학적 관점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획기적인 음악장르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 코드와 스케일

Blues 스케일을 구성하는 5개의 음들 중 화성과 상반되는 음의 중심에는 b3음과 b7음이 있다. 이 두음은 각각 화성학적으로 메이저코드의 구성음인 3음 또는 7음과 충돌하여 이론적으로는 사용 불가능한 음들이다. 하지만 기존 음악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이 두음의 모순된 사용은 훗날 Blues만의 고유한 사운드를 창출하는 핵심요소로 인식되면서 음악가들은 이들을 Bluenote라 칭하고 Blues음악의 본질로 취급하였다. 아울러 b3음과 b7음만큼 일반적이진 않지만 Blues 스케일의 구성 음들 중 또 다른 음이

Bluenote로 취급되어 있는데 그 음은 바로 11th 이다. 이 11th 또한 b3음과 b7음의 경우처럼 화성학적으로는 메이저코드 위에서 Avoid Note로 분류되어 그 사용이 제한된 음이지만 Blues음악에서는 그 음이 강조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림 2] C메이저코드와 C블루스스케일

위의 결과들만을 놓고 본다면 Bluenote란 어쩌면 기존 음악의 틀 안에서 화성학적으로 그 사용이 합리화 될 수 없는 음들의 집합으로서 그 자체가 완전히 차별화된 Blues음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Blues음악의 발전과 함께 새로이 추가된 Bluenote b5음을 재조명하고 나아가 새로운 Bluenote b9음의 사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본론

초기 Blues음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Major 화성과 Minor 멜로디의 결합이라 할 수 있으며 흔히들 메이저블루스라 부른다. 이는 화성진행이 조성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이후 Blues음악이 널리 연주 되면서 모든 음악의 조성이 장조와 단조로 양분되어 있듯 Blues 또한 Major 대신 Minor 화성진행이 사용되면서 마이너블루스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탈바꿈 하게 된다.



[그림 3] 마이너블루스

하지만 마이너블루스가 외관상으로 Blues음악의 형식을 따르고는 있다 하더라도 기존 단조음악과 다를바 없이 Minor 화성에서 Minor 멜로디를 사용하는 결과가 되면서 Blues음악의 정체성을 잃게 되었다. 다시 말해 메이저블루스에서의 Bluenote와 같은 존

재를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주자들은 마이너조성 안에서 Blues적인 사운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결국 Diminished 멜로디의 특징음인 b5음을 마이너블루스의 Bluenote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 b5음은 이후 마이너블루스뿐만 아니라 메이저블루스의 주요한 Bluenote로서 취급되어진다.



[그림 4] 블루노트 b5th

메이저의 b3음과 b7음의 경우처럼 마이너블루스에서 사용된 b5음을 화성학적 이론에 근거해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조금은 주관적일 수는 있겠으나 b5음의 출현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메이저블루스와 마이너블루스의 개연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 할 수 있다. 우선 화성의 성질에 따른 명암의 순서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Major>Minor>Diminished

[그림 5] 화성의 명암 순서

이를 토대로 철저히 결과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초기 Blues음악을 정의 하면 메이저블루스는 메이저조성의 화성진행과 그 보다 어두운 마이너조성의 b3음과 b7음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블루스 또한 메이저블루스가 그러했듯이 Blues적인 사운드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더 우울한 디미니쉬성의 b5음을 빌려 쓸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로 귀결되는 것이다.

\*Major Blues =

Major Harmony + Minor Melody (b3, b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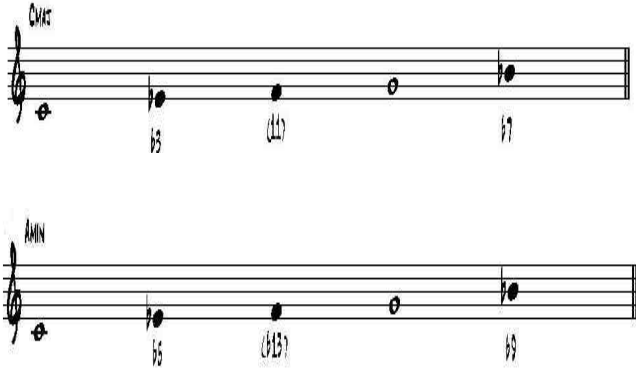
\*Minor Blues =

Minor Harmony + Diminished Melody (b5)

[그림 6] 메이저블루스와 마이너블루스의 개연성

b5음의 당위성을 설명 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으로는 관계 장단조의 연관성을 들 수 있다. C Major Key와 A Minor Key는 관계 장단조로서 서로 다른 조성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Diatonic

Note와 Diatonic Chord를 공유하고 있다. 이는 이 두 조성간의 동질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C Major에 사용되는 Bluenote들을 A Minor와 연관 지어 분석해 보면 C Major의 대표적인 Bluenote b3음이 A Minor에서는 b5음으로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결국 마이너블루스를 상징하는 Bluenote인 b5음은 관계장조의 Bluenote인 b3음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추정되는 것이다.



[그림 7] 관계단조에서의 블루노트

위의 결과에 근거하여 “메이저블루스의 Bluenote는 관계 조에 있는 마이너블루스의 Bluenote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추론하면 새로운 Bluenote의 가능성이 발견되어 지는데 이는 C Major의 또 다른 Bluenote b7음이 A Minor에서 Bluenote b9음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b9음 자체가 다른 Bluenote들(b3,b5,b7)과 달리 Chord Tone의 구성원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성학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불협화음의 조성인자로서 오로지 Dominant 기능의 코드에서만 Available Tension으로 취급되는 까닭에 다른 Bluenote들에 비해 그 사용이 다소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 3. 결론

오늘날 재즈음악의 Improvisation에 있어 Avoid Note와 Available Tension간의 모호한 경계는 더 이상 낮선 현상이 아니며 오히려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협화적인 선율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현대의 Blues음악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것이며 이런 관점에서 새로이 추가된 b9음의 사용과 함께 새로운 Bluenote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

다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Barrie Nettles, “Harmony 2 Workbook”, Berklee Press, 1995
- [2] Gary Campbell, “Expansions”, Houston Publishing, 1988
- [3] Hall Crook, “How To Improvise”, Advance Music, 1991
- [4] Bret Willmott, “Book of Harmony”, Theory & Voicing, Melbay Publications, 1995
- [5] Ron Miller, “Modal Jazz Composition & Harmony”, Advance Music, 1997